

## 시마바라반도 온천

시마바라반도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운젠 온천가와 운젠 화산군에 쓰인 운젠이라는 지명은 원래 ‘온천(温泉)’이라 표기하고 운젠으로 읽은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20세기 초에 현재의 표기가 되었습니다. 온천은 반도에 있는 오바마, 운젠, 시마바라라는 3개 마을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각 온천의 각기 다른 수질에 대해 알면 이 지역을 형성한 화산의 경이로운 힘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그마는 모든 천연 온천의 열원이며, 시마바라반도의 온천은 서쪽 다치바나완 해저 깊은 곳에서 마그마에 의해 가열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온 가스가 화산 분출구를 지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표면에 가까워지면서 지하수나 빗물과 섞이게 됩니다. 이 물과 가스의 혼합물이 나오는 곳에 온천이 만들어집니다.

시마바라반도의 지도를 보면 오바마, 운젠, 시마바라의 온천 사이가 거의 일직선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 지역의 특징인 단층에 의한 것입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그 단층의 방향을 따라 지각에 균열이 생깁니다.

마그마가 지표쪽으로 상승함에 따라 가스의 온도와 압력이 서서히 낮아지고 그 화학성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의 온천은 황화수소의 함유량이 높고 매우 고온인 반면, 시마바라의 온천은 온도가 낮고 철분이 많습니다. 마그마권의 형상과 시마바라의 지형은 현재 반도 사람들의 삶과 번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관광업이 없었다면 시마바라반도의 인구도 발전도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